

측정치 조작 기업 환경개선 3천억 투자

대기업 5곳 미세먼지 저감 등 자구책 마련 주민대표 투자계획 검증·공개방안 등 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한 여수산단 5개 기업이 환경개선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3,250억원을 투입하는 자구책을 내놨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산단 환경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전남 여수시의회에서 제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거짓기록 위반업체인 엘지화학, 금호석유화학, 한화케미칼, 지에스칼텍스, 롯데케미칼 등 5개사가 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기 TMS(Tele Monitoring System) 부착 확대 ▲여수산단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관리기반 구축 및 사업장별 악취 측정기 설치 ▲미세먼지 저감, 환경시설 최적화 등 환경부

야 설비 확충 등이다.

또 ▲서면 사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합동조사 협조 ▲환경부가 마련 중인 대기 자가측정제도 개선 방안 적극 수용 및 자체 개선 방안 마련 ▲기업체 및 지역 주민 간 상호협력 방안 적극 모색 등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주민 대표들은 기업체가 발표한 투자계획에 대해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검증·공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고 기업체에서는 이를 수용했다.

주민대표들은 또 지역사회 공헌 방안과 5개사 투자 계획의 시기별 세분화, 열지 화학을 제외한 4개사의 대표이사 명의의 사

과, 유류저장탱크 개방검사와 관련한 미세먼지·토양오염 저감대책, 주민이 선정한 측정대행업체를 통한 현장조사 시행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선 추후 검토를 거쳐 종합대책 수립에 반영키로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철우 국립환경과학원 과장이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광양, 여수 국가산단지역 주민 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조사'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광주수영대회 안전 대회로 만들자” 이총리 대테러훈련 참관...“올여름 수영축제 만끽”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대테러종합 훈련을 참관하기 위해 4일 광주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완벽하게 안전한 대회 준비’를 주문했다.

이번 훈련은 다음 달 12일 개막하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테러 대비 태세와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드론을 이용한 폭발물 공격, 선수단 탑승 차량 탈취, 사린가스 공격 등을 가정해 이뤄졌다. 대테러특공대의 진압 작전, 화생방 대응조직과 소방본부의 수습 및 복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광주전남지역테러대책협의회, 광주시가 주관한 가운데 8개 기관 800여명이 참여했다.

이 총리는 이날 훈련이 끝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완벽하게 안전한 대회로 만들자”며 “광주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저비용·고효율의 안전한 대회로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도 올여름 세계수영축제를 만끽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애란 기자

농축산업 재생에너지 도입 수익 모델 개발

전남도, 산업부 공모 선정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농어촌 대상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에서 농작물과 축산업 분야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210억원을 투입해 에너지 자립 및 수익 창출 모델 개발을 본격화 한다.

‘농어촌 대상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은 농작물 재배와 축산에 사용하는 화석에너지를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으로 대체하는 융합시스템을 개발·실증하는 사업이다.

농작물 분야는 광양시와 고흥군에서 진행하며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스마트팜 온실에서 최적의 환경 제어시스템, 드론 활용 열에너지 손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시설원에 내 폐열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등을 추진한다. 주관 기업인 나주 소재 ㈜엘시스와 도 출연기관인 (재)녹색

에너지연구원, 전남테크노파크 등이 공동 참여한다.

축산업 분야는 순천시에서 이뤄지며 축산농가에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스마트축사 환경 설비, 악취 제거를 위한 분뇨처리 순환시스템, 재생에너지 분산전원 전력거래 시스템 등을 개발해 실증한다. 주관기관인 순천 소재 ㈜더블유피와 연구기관인 순천대 산학협력단 등이 함께 추진한다.

실증사업이 마무리되면 농가와 축산업의 에너지 자립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3일 “농축산 현장에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을 활용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온실가스도 저감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전국 최고의 농도이자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전남에서 농축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4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 한수원에 한빛원전 대책 요구

사고 원인 공개·지자체 감시체계 참여 등

김영록 전남지사가 '한빛원전 수동 정지'와 관련, 조속한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집무실에서 전취수 한국수력원자력 기술총괄부사장, 석기영 한빛원자력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상황과 현재까지 조치 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번 사고는 그동안 발생했던 크고 작은 여러 건의 사고가 그랬듯 무사안일과 무책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예견된 인재”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각별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영광군민과 도민,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말을 믿지 않는다”며 “이러한 극심한

국민적 불신과 지탄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신뢰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과 진정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조속한 사고원인 규명과 결과 공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상응한 처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남독할 만한 대책 강구 ▲광역지자체의 원전 감시체계 참여 등을 촉구했다.

현재 방사능 누출 시 주민 보호 조치와 관련한 책임만 시·도에 있을 뿐 안전관리 등 사고 이전의 모든 사전 조치 권한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지자체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근산 기자

광주시, 김문주 박사 명예고문 위촉

광주시는 4일 인공지능(AI) 중심 산업 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인공지능 전문가인 김문주 박사를 명예기술고문으로 위촉했다. 또 김 박사가 대표로 있는 에스브이테크넷, 유에스아이(SV TechNet, USA)와 기술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명예기술고문은 광주시 인공지능 사업의 정책수립과 핵심기술 기업이전, 실리 콘밸리와 네트워킹 등 인공지능 중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김 박사는 현재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탈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이비엠(IBM)에서 28년 간 슈퍼컴퓨터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하면서 인공지능 하이브리드

멀티코어반도체 집 개발 등 AI 관련 특허 19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날 광주시와 에스브이테크넷, 유에스아이는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광주시가 추진 중인 AI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 광주 산업상 태계의 글로벌 진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광주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연구를 위해 실리콘밸리 생태계와 상호협력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군공항 이전 통합적 협력체계 필요

▶1면에서 계속

한 단장은 “이전 후부 지역인 무안, 해남 등에서는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며 “오해 확산을 방지하고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필요하면 (해당 지역에서) 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자체,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특별법 절차에 따라 공청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부지 선정 기준과 원칙을 정부와 지자체 등과 협의

해 정하고 주민투표 등을 통해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이전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는 군 공항 이전 예비 이전 후보지의 조속한 선정을 촉구했다.

채일병 대표회장은 “광주 군 공항의 주변 상황이 변화돼 운인 과밀화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면서 “광주시민의 대다수는 전남의 자식들로 광주와 전남은 서로 상생과 번영의 길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야

- ▶ 남구, 덕남동 산, 도로접합
- ▶ 992㎡(300P), 지분 매매
- ▶ 기회 부동산 물건 아남
-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 인접 명지도 15만~20만씩매매됨
-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H.010-6834-7400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광고·영업·분양·모임

- 광고국 062) 720-1016, 1017
- 팩 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000@hanmail.net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만, 근조화환 3만

경조화환 7만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제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의회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임 야 단독섬

- ▶ 바로합니다
- ▶ 지분물건 환영
-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문의. 010-6834-7400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